

보도해명자료 (‘19. 5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유류세 환원 첫날, 가격을 1원 이상 올린 주유소는 56.3%임 (조선일보 5.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유류세 환원 첫날, 가격을 1원 이상 올린 주유소는 56.3%이며, 1원도 올리지 않은 주유소는 43.7%임
- ◇ 5월9일 조선일보 <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, 전국 주유소 71%가 가격 올랐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유류세 환원 첫날(‘19.5.7), 전국 주유소 71%가 1원 이상 가격을 올려, 유류세 인하 첫날(‘18.11.6) 1원 이상 내린 주유소 19.2%와 비교시 그 차이가 큼
- ② 유류세 인하첫날 인하분(123원) 이상으로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6.5%에 불과하며, 유류세 환원첫날 가격을 환원분(65원) 이상으로 인상한 주유소는 12%에 달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, 유류세 환원 첫날에 가격을 1원 이상 올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56.3%이며, 유류세 인하 첫날에 1원 이상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25.1%임
- ② 유류세 환원 첫날에 가격을 환원분(65원) 이상으로 인상한 주유소는 10.5%이며, 유류세 인하 첫날에 인하분(123원) 이상으로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12.8%임

< ① 유류세 환원 1일차, 가격변동 주유소 비율 >

구분	기사내용	정정
1원 이상 인상	71%	56.3%
환원분 이상으로 인상	12%	10.5%

< ② 유류세 인하 1일차, 가격변동 주유소 비율 >

구분	기사내용	정정
1원 이상 인하	19.2%	25.1%
인하분 이상으로 인하	6.5%	12.8%

- ③ 유류세 환원 첫날, 1원도 올리지 않은 주유소는 43.7%이었으며,
- 알뜰주유소 인상폭은 18.9원으로 정유사폴 주유소(23.4원), 전체주유소 평균치(22.9원) 대비 낮았음
 - 특히, 자영알뜰주유소와 농협알뜰주유소의 인상폭은 각각 16.3원, 12.9원으로 가장 적게 인상함
 - 유류세 환원 2일차인 5.8일 기준, 인상폭은 11.8원으로 환원 1일차(5.7) 인상폭(22.9원)보다 11.1원 축소되고 있어, 가격인상 속도가 환원 첫날 보다 줄어들고 있음
- ④ 산업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*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,
- * 정유업계·관련협회(석유, 주유소, 유통)·알뜰주유소 관련기관(석유공사, 농협, 도로공사, 자영알뜰협회) 등과 가격안정화 협조요청을 위한 간담회 개최
 - 석유공사(오피넷),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(소비자단체)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
 -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,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

※ 문의: 석유산업과 윤창현 과장/류종민 사무관 (044-203-5223)